

목포시, 글로벌 식품 '김' 효과 누릴까

지난해 목포는 풍어를 맞은 수산업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목포수협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위판고는 1,600억원으로 이는 종전 최고인 1,500억원을 훌쩍 넘는 역대 최고다. 이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 김치에 힘입은 결과다. 김치는 2016년 121억원에서 지난해 244억원으로 두 배 이상 위판됐다.

목포 수산물의 간판인 참조기도 위판 물량이 2016년 333억원에서 2017년에는 390억원으로 증가했다. 김치와 조기 등 어류가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은 가운데 해조류인 김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발표

지난해 우리나라 김 수출액 5억 달러 돌파

김 가공업체 대양산단 집적...시너지 효과

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5억 달러(약 5,350억원)를 돌파했다.

이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거둔 성과이다. 수출 불량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 2만톤을 넘어섰다. 올해도 김 생산 호조에 힘입어 6억달러(약 6,420억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과거 김은 주로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반찬으로 주로 소비됐으나 최근에는 미국, 러시아, 독일 등에서 저칼로리 건강 스낵으로 인기가

이하며 글로벌 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김이 세계 김 시장을 석권하는 추세가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가운데 지난해 7월 우리나라가 제안한 '김 제품 규격안'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아시아 규격으로 채택되면서 세계화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처럼 김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민방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대양산단 김 가공 집적단지로 변모해가는 목포에 고무적인

소식이다. 대양산단은 전국 물김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전남, 특히 서남해안과 모두 가깝고 바닷물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경기도, 충청도 등의 업체로부터 투자까지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마른김 업체 9개소와 조미김 업체 6개소 등 15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2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 중이다. 앞으로 13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면 대양산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김 가공단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해양수산부가 대양산단에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국립 김 산업 연구센터까지 설치된다면 목포는 특산품인 김을 앞세워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명성을 떨칠 전망이다.



강진군이 지난 19일 서울시 양재동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열린 '2017년 귀농귀촌 지역사회 발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전국 1위인 최우수상을 받았다.

강진군, 귀농귀촌 정책 공모전 전국 1위

농림부 주최 지역사회발전 공동사업 우수사례 최우수상

귀농귀촌 1번지 강진군이 정부가 주관한 귀농귀촌 정책 공모전에서 전국의 지자체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해 인근 농어촌 지자체들의 부러움을 받음과 동시에 강진 귀농·귀촌인들의 자부심을 높였다.

강진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가 주관한 '귀농귀촌 지역사회발전 공동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강진군은 지난 19일 표창과 함께 시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귀농귀촌 지역사회발전 우수사례 공모전은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마을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 차별화된 아이디어 및 사업을 활용해 갈등을 해소하고 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자생적인 소득 기반 형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공모전이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귀농인의 농촌생활에서 지역주민과 융화 및 갈등해결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진군은 2017년 도시민 농촌 유치 성과 평가에서 전국 2위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함께 전라남도 귀농·귀촌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도시민 농촌 유치 노력에 대한 강진군의 높은 의지를 인정받고 있다. 이어 이번에도 강진군이 귀농귀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며 '귀농귀촌 1번지'라는 명성을 거듭 확인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이동근 소장은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게 된 이유는 2007년 전국 최초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차별화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귀농인과 지역민의 융합을 위해 계획적인 사업 추진과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귀농 정책을

펼친 덕분"이라고 말했다.

강진군은 지역민의 융화합 사업으로 이장단과 귀농인 워크숍을 통해 귀농귀촌인 유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귀농·귀촌인이 많은 마을을 선정해 감성화합마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귀농인 유치 붐을 조성하고 있다.

여기에 귀농인과 지역민 한마음 대회를 개최해 귀농·귀촌인과 지역민들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도시민 농촌 유치를 심혈을 기울인 결과 1천200가구 2천900여명이 귀농해 농업에 종사하는 등 귀농·귀촌인 유치를 제2의 직업으로 삼고 있다. 2017년말 기준 강진 인구가 3만7000여명인 가운데 강진 거주 인구의 약 10%에 육박하는 수치다. 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귀농 정착 지원 보조사업과 빈집 수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민 농촌 유치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국비 1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 예비 귀농인들에게 판투어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정착한 귀농·귀촌인들에게는 농촌문화 체험 기회와 다양한 문화 교육, 영농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강진군은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인 올해 13억원을 투입해 예비 귀농인들이 숙소 걱정 없이 강진을 둘러보고 거주할 곳을 선택하고 영농체험을 통해 귀농 후 경작 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험형 귀농사관학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명품 해남고구마

재배 준비 '한창'

조직배양묘 20만본 농가공급

지리적표시 농산물 42호 해남고구마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묘 분양이 시작됐다.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는 3월까지 생산, 공급되는 조직배양묘는 호감미, 풍원미, 단자미, 진물미 등 4개 품종으로 총 15만본, 가을 5만본 등 총 20만본을 채종 농가 및 단체로 분양할 예정이다.

채종농가 20ha에서 증식한 줄기묘는 관내 고구마 재배 농가로 공급되며, 이를 통해 전체 고구마 면적의 90% 이상까지 조직배양묘 보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직배양묘는 건강한 고구마의 생장점을 채취해 무바이러스 상태로 배양한 조직묘로 일반묘보다 30% 이상 수량이 높고 색깔과 균일도가 높아 고품질 해남고구마의 명성을 만들어 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구마 조직배양묘를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한 해남군은 고품질 고구마 생산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나가며 매년 20~30만본의 조직배양묘를 보급하고 있다.

곡성군, 건강팔팔마을 10주년 기념 사업설명회 가져

2008년부터 시행...現 121개 마을 16400명 참여



곡성군은 지난 17일 건강수명을 연장해 건강한 곡성을 만들고자 '건강팔팔마을 10주년 기념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건강팔팔마을만들기사업은 2008년부터 매년 11개 신규마을을 선정해 현재는 121개 마을로 16,400명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교육과 신체활동프로그램인 요가, 걷기를 지도해 마을주민들에게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구심점과 동기부여를 했으며, 2010년부터는 매년 주민건강걷기행사를 개최해 마을단위 건강걷기를 생활화하고 정착시키는 데 앞장섰다.

김영라 곡성보건지원장은 건강팔팔마을만들기사업은 "곡성군 보건사업 중에서 10년 동안 꾸준히 이어 온 단독사업으로 전국에서 아주 좋은 모델의 보건사업"이라며 "2018년에도 신규 건강팔팔마을에 요가 전문 강사를 투입해 동절기 요가·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팔팔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곡성=김광휘 기자

영암군, 키즈 세이프 영암만들기 보육정책 추진

영암군은 2018년 새해를 맞아 키즈 세이프 영암만들기 실현을 위해 다른 지자체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보육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신규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민선6기 시작과 함께 영암군어린이집연합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였고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

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암군은 42개어린이집에 19백명여의 영유아를 보육할 계획이다

자체사업으로 12개사업이 지원된다.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안전공제기금비를 지원하고 열악한 보육시설운영지원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편 영광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지원하고 어린이집 통화차량 운영비는 정부지원 부

족분에 대하여 6개월분을 추가지원하고 정부지원 민간시설에도 금년부터 기능보강사업비를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더불어 보육교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연수와 연찬회를 통한 보육사업 발전을 모색하고 2017년부터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 부담차액보육료 80%를 지원하여 교육의 평준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전체어린이집 370여명에게 처음개신으로 수당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광산 010-5604-6533	송하 010-8620-1925
중암 010-3365-6200	학운 010-4166-1810	임동 010-2656-4543	양산 010-2646-3205
광천 010-6612-8599	금호 010-6636-2775	오치 010-7532-3313	북구 010-4601-2080
상무 010-5359-7406	풍암 010-6634-5084	동운 018-611-7751	용봉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두암 010-2684-6091
진월 010-2615-8374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완도 010-9578-5900	장성 010-5287-7711
담양 010-3629-9016	무안 010-5234-2313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화순 010-2077-6464
여수 010-6655-8503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호수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